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40 웰컴 투 시월드(재)	00 신년특집 KBS 뉴스광장	00 신년기획 국토농 대한민국 1~2부	00 신년특집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부부극장 콩깍지(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25 신년특집 하늘에서 본 한반도	00 KBS 아침 뉴스타임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신년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년특집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혜> 40 2013 KBS 연기대상(재)	50 앙코르 MBC 방송연예대상 1~2부	10 신년특집 좋은 아침
10 30 웰컴 투 시월드 베스트(재)	00 신년기획 2014 대한민국 창가의 미래를 연다			30 소치동계올림픽 특집 <뜨거운날의 도전>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0 2013 영상실록 국내편(재)		45 MBC 뉴스 55 라디오스타 스페셜	30 드라마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재)
1 30 뉴스토보 1~2부	00 2013 영상실록 해외편(재) 50 KBS파노라마 플러스(재)	20 2013 KBS 연예대상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재)		50 SBS 뉴스
2 00 2013-2014 V리그 <대한항공vs현대캐피탈>	4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15 신년특집 기행문헌에 돌아보기		00 2013 SBS 연기대상 1~2부
3 50 이영돈-신동엽 전틀맨(재)	00 황금의 펜타곤(재)	20 가족의 품격 토크하우스(재)	15 앙코르 메리크리스마스 세시봉	
4 00 KBS 뉴스 5 10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25 위기탈출 넘버원(재)			45 SBS 뉴스 55 전국TOP10 가요쇼(재)
5 10 신년특집 채널A 뉴스 TOP10	00 카운트다운 소치 동계 올림픽 55 시청자클럽 우리시는세상	30 생생 정보통	10 MBC 뉴스 20 소치동계올림픽 특집 <마지막 선곡 아디오스노니노>	
6 20 신년특집 관촬카메라 24시간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 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신년특집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키운 딸 하나>
7 30 신년특집 채널A 종합뉴스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0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신년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신년특집 한밤의 TV 연예
8 50 신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신학이1~2부>	00 신년특집 KBS 뉴스9		30 키프의 베란디소	
9 00 2014 신년 대기획 <부부의 조건 1편> 50 2014 신년 기획 <글로벌 리더의 선택 1편>	00 수목드라마 <예쁜남자>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코리아>	00 드라마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10 30 KBS 뉴스라인	10 맘마미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신년특집 짝
11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3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뉴스24	35 나이트라인 55 자기가 백년손님

EBS

05:00 성공 인생 후반전 <맛있는 케이크 맛있는 인생, 케이크 디자이너 전미경>	08:35 방귀대장 뽕뽕이 08:50 모야모야 09:05 코코콜라 09:20 부모 <양심에서 꿈으로 돌아온 양준혁>	08:35 방귀대장 뽕뽕이 08:50 모야모야 09:05 코코콜라 09:20 부모 <자녀를 위한 행복 매뉴얼>	<골든드라이앵글을 기다리다 3부 - 루양남다, 렌텐죽을 만나다>	20:00 EBS 뉴스 20:20 다문화 사랑 <스무 세대의 달콤 씹싸뽀한 인생>
05:30 부모 <양심에서 꿈으로 돌아온 양준혁>	06:10 세계의 눈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세상 제3편 - 물속에 숨은 세상>	10:00 한국기행 <보길도 바다 3부 나의 사랑 보길도>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5 지식재능 13:10 겨울방학생활 2학년 13:30 겨울방학생활 4학년 13:45 겨울방학생활 6학년 14:10 신년특선영화 <벤허 1~2부>	20:30 세계대마법 <휘바! 핀란드3부 - 숲과 호수의 나라>
07:00 곤 07:15 마이의 모형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당동영 유치원 08:20 풍선 코끼리 발루보	10:20 영의의 건국비결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 - 내분비내과 전문의 조보연 교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이연순의 대대손순 내림음식 - 굴 떡국과 버섯 누룽지>	18:00 두더지콩 18:15 곤 18:30 생방송 보노하니 19:30 두끼 탐험대	21:30 한국기행 <해피랑길 3부 새해의 선물>
	11:20 세계대마법			21:50 신년특별기획 <2014 교육을 말한다>

EBS플러스1

00:0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 <Basic Grammar>	10:50 2014 수능개념 <영어 중급> 11:40 2014 고등 예비과정 <국어>(재)
01:40 수능 길잡이 <독서> <문학>	12:30 박복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수학 1>(재) <수학 1>
02:30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 1>	15:0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구문법>(재) <수학 1>
03:20 <수학 1>	16:00 2014 수능 개념 <수학A형(1)>(재) <기하와 벡터>(재)
04:10 <영어 독해 구문법> <영어 독해 유형편>	17:00 <수학A형(1)>(재) <기하와 벡터>(재)
05:50 <수학 1>	18:00 수능 길잡이 <독서>(재) <문학>(재)
06:4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2> <Basic Grammar>	19:00 <수학 1>(재) <미적분과 통계기본>(재)
07:30 <수학 1>	20:00 <수학 1>(재) <영어 독해 유형편>(재)
08:20 2014 고등 예비과정 <국어>	21:00 <수학 1>(재) <수학 1>
09:10 <수학 1>	22:00 2014 수능개념 <영어 중급>(재)
10:00 <영어>	23:0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유형편>(재)

EBS플러스2

07:00 상상과 창조의 인문학 이야기 07:50 수학의 원리 마티메티카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검증고시 강좌 09:00 즐겨온 수학 EBSMATH 09:10 중학 예비과정 <국어1> <수학1(상)> <수학1(하)> <도덕2>	15:20 초등2년 겨울방학생활 15:40 초등4년 겨울방학생활 16:00 초등6년 겨울방학생활 16:20 초등 개념잡기 <사회> 16:50 한지교육 드라마<어린이 손자방> 17:20 중학예비과정 <영어2>(재) 18:00 성인 인생 후반전 <수학 3-1> <영어>
09:50 <수학 3-1> <영어>	18:30 한 그릇 떡볶이 <도덕2> 18:40 리더십 세미나(5/6) <국어3(4)> <영어2(1)> <수학2(1)> <세계사> <한문>
11:10 중학 1학년 <국어3(4)> <영어2(1)> <수학2(1)> <세계사> <한문>	17:20 중학예비과정 <국어3(4)> <영어2(1)> <수학2(1)> <세계사> <한문>
11:50 중학예비과정 <국어3(4)> <영어2(1)> <수학2(1)> <세계사> <한문>	20:20 상상과 창조의 인문학 이야기(재) 21:10 스콜랜드(재) <사회> <수학 3-1> <영어>
13:50 중학 개념 풀장내기 <수학 3-1> <영어>	22:00 <수학 3-1> <영어>
14:30 <수학 3-1> <영어>	22:40 <수학 3-1> <영어>
15:10 스콜랜드 <국어>	23:20 <국어>

TV 하이라이트

로마시대,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

신년특선영화 벤허 1~2부(EBS·오후 2시10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26년. 예루살렘에서 제일가는 부호 명문가의 장자 유다 벤허(찰턴 헤스턴 분)는 로마의 호민관이 돼 돌아온 옛 친구 메살라(스티븐 보이드 분)와 반갑게 재회한다. 하지만 유대와 로마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두 친구의 우정도 예전 같지만은 않다.

힘든 죽음의 노예선에서 3년 넘게 중노동에 시달리던 벤허는 어느 날 마케도니아 함대와 치열한 해전에서 사령관이자 집정관인 퀸투스 아리우스의 목숨을 구해준 인연을 계기로 노예 신분을 벗고 아리우스 집정관의 양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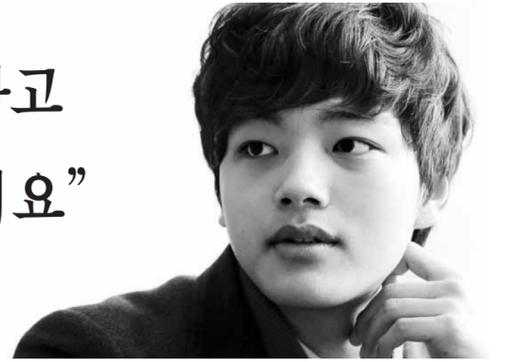
로마에서의 화려한 귀족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벤허는 예타게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찾지만 그를 사랑하는 노예 처녀 에스더를 통해 두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된다. 벤허는 복수를 위해 메살라와 전자 경주에 출전하고, 메살라는 벤허를 죽이려고 비열한 음모를 꾸미지만 경주 도중 오히려 자신이 전자 바퀴와 말발굽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만다.

메살라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나병에 걸려 나환자들의 골짜기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숨을 거둔다.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벤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족과 함께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를 찾아간다. 하지만 예수는 벤허의 소위로 자목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벤허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지켜보며 그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다. 예수가 숨지자 하늘에서 천동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온종일 배역 연구하고 몰입하는 배우 될래요”

영화 ‘화이’로 신인상 휩쓴 여진구



도대체 이런 목소리는 어디서 왔을까? 들으면 적 없는 중저음의 탁한 듯 감미로운 목소리. 이런 허용 모순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십 대 소년이다. 연합뉴스 영화담당 기자들이 선정한 내년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스타는 ‘화이 : 괴물을 삼킨 아이’로 올해 영화 신고시를 치른 배우 여진구(16)다. 영화 제목처럼 ‘괴물’ 같은 신인이다. “‘화이’ 덕분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상도 받았죠. 그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두시고 있다는 뜻인데, 무척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화이’로 올해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독식했다. 제34회 청룡영화상과 제33회 영평상에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제50회 대중상에선 ‘화이’가 출품되지 않아 아쉽게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여진구의 장점은 독특한 목소리와 잘생긴 외모도 있지만 끊임없는 연습과 연기에 대한 열정이다. ‘화이’를 연출한 장준환 감독에 따르면 그는 좀 더 나은 감정을 위해 똑같은 장면을 10여 차례 반복해 찍기도 했다. “아주 좋았어요. 드라마에선 시간이 부족해 찢쩍거리더라도 테이크를 많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이’에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었어요. 감독님의 요구에 따라 테이크를 많이 갖지만 지친 적은 없었어요. 똑같은 감정을 연기했다면 지칠 텐데, 할 때마다 감독님이 새롭게 주문했어. 감

동님이 세심하게 많은 걸 챙겼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지난해 빅히트한 TV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혜성처럼 등장한 연기자인 것 같지만 사실 그는 8살 때인 지난 2005년 영화 ‘새드 무비’로 데뷔한 아역 출신 연기자다. “어린 시절 TV를 보고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활동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에게 연기자가 되겠다고 했죠. 부모님은 흘러들지 않으시고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스타덤에 올랐지만, 위기도 있었다. 미성의 소유자였던 그에게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그는 슬럼프에 빠졌다. 중학교 1년 때 찾아온 변성은 종3까지 계속됐다. 까탈까끌하고 거친 목소리는 그의 콤플렉스를 건드렸다. “많이 헤맸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감정전달이 잘 안 됐죠.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다. 그러다가 ‘해를 품은 달’을 연기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기쁘기도 했지만 당황했습니다.” 여진구는 드라마와 영화를 거쳐 현재 tvN의 시트콤 ‘감자밭2013QR3’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트콤 출연은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이다.

“드라마보다도 더 촬영 속도가 빨라요. 템포가 빨라서 조금 힘든 측면도 있지만, 시트콤이라서 그런지 웃을 일이 많아요. 재밌어요.”

방송과 영화를 넘나들며 여러 장르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십 대 소년이다. 아침 일찍 어머니가 깨워도 침대에서 꿈지락거리길 좋아하고 친구들과 농구와 축구를 즐기며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대해 진학도 선택해야 하는 고교생이기도 하다.

“연기도 좋지만, 학생으로서의 학업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전 배우를 할 것기에 때문에 배우로서의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학생으로서의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아요. 2학년 때는 좀 더 학업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간다면 연기보다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여진구는 값어치 새해에 영화와 드라마에 도전할 예정이다. 시나리오와 각본이 계속 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감자밭’의 촬영이 길게는 내년 5월까지 예정돼 있어 그 이후가 될 공간이 크다.

“데뷔한 지 8년 됐지만, 연기에 대해 고민한 건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모든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맡은 역할에 한 없이 빠져드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종일 배역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배우 말이지. 죽을 때까지 연기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동방신기 10년 “부른 노래만 1000곡”

오는 6일 정규 7집 ‘텐스’ 발표



“10년간 한국과 일본에서 콘서트 트랙까지 포함해 1000 곡을 불렀더라고요. 우리가 팬들과 교감한 모든 스테이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유노윤호) “몇 년 전 잠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SM타운 공연 때 와이아를 타고 분내로 날아오는 연출이 있었는데 돌이 두 손을 꼭 잡고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최강창민) 동방신기(유노윤호, 최강창민)가 데뷔 10주년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들은 SM 음악 페스티벌 ‘SM타운 워크’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단독 공연 ‘타임 슬립’(Time Slip)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났다. <연합뉴스>

김연아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동계올림픽 특집 ‘마지막 선곡 아디오스 노니노’(MBC·오후 6시20분) = 김연아의 마지막 올림픽 도전을 담은 ‘마지막 선곡, 아디오스 노니노’는 소치올림픽에 도전하는 김연아의 여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어낸 신년 특집 프로그램이다.

특히 가수 아이유(20·분명 이지은)가 피겨스케이팅 프로그램에 등장해 김연아 선수를 응원한다.

그는 평소 절친한 김연아에게 “(김연아가) 변했다.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를 정도다). (김연아에게) 위풍당당함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털어냈다.

아이유와 김연아는 지난해 1월 함께 부른 ‘얼음꽃’ 음원 수익금(약 1억5000만원)을 필리핀 어린이 돕기 긴급 구호기금으로 내놓는 등 돈독한 우정을 이어왔다.

꽃제비 진혁이를 아십니까



신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신학이 1~2부’(채널A·밤 9시50분) = 올해 초 방영된 ‘특별취재 탈북’에 나온 꽃제비 진혁이를 기억하십니까. 새빨간색 연 얼굴로 한 겨울 짙은 강을 건너고, 난생 처음 겪는 차림미를 견디며 탈북을 시도했던 진혁이의 진짜 이름은 김진혁이다.

사선을 넘으며 여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지 1년. 진혁이의 키는 20cm 넘게 훌쩍 자랐다. 꽃제비 출신 진혁이는 국경을 넘는 솜박하는 과정으로 감동과 눈물을 안겨주었다. 이번 다큐에서는 진혁이가 한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여는 또래 아이들처럼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과 함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모습도 함께 담았다. 북한 꽃제비였던 7살 진혁이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우주 팽창의 비밀



세상의 모든 다큐 ‘우주의 비밀을 찾아서’(KBS2·2일 0시45분) =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 탄생한 이후로 계속 팽창을 거듭해 왔다. 1988년부터 우주의 갑속 팽창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울 펴뮈터 교수는 갑속 속도 측정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결과에 당황하게 된다. 시험 결과가 갑속 팽창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는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펴뮈터는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팽창을 가속시키는 힘은 암흑물질이 가진 중력에 반하는 척력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진 암흑 에너지였다. 우주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에도 존재하지만 일상에서 느끼기 못할 정도로 미약하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큰 힘을 발휘한다.